

쌀輸入開放反對에 관한決議案 審査報告書

1993. 3. 17.
市民保社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3月 3日 尹泰鳳議員外 6人 發議
- 나. 回附日字: 1993年 3月 8日 市民保社委員會 回附
- 다. 上程日字: 1993年 3月 16日
第16會(臨時會) 第1次 市民保社委員會 上程 決議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尹泰鳳議員)

가. 提案理由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민의 권익보호 및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수입개방 대상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촉구
-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金熙中)

脫冷戰時代의 國際化 開放化로 自國의 利益을 위해서는 經濟戰爭도 不辭하는 昨今의 狀況下에서 農產物輸入開放壓力은 例外일수 없는 焦眉의 關心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국민의 主食이며 將次 食糧安保와도 直決된은 물론 地域經濟 活性化의 基盤이 되어 都農間 不均衡을 解消할 수 있는 意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衰退一路에 있는 우리 農漁村 經濟를 時急히 되살려야 한다는 現實認識속에서 쌀 輸入開放壓力에 積極 對應으로 우리 農業의 構造的 脆弱性이 克服되고 農業競爭力이 向上될 수 있는 計劃的인 對策이 早期 마련될 수 있도록 政府와 國民 모두가 이에 同參할 수 있도록 쌀 輸入開放反對 決議案을 우리구 議會에서 採擇하고자 하는것은 매우 適切하다고 思料됩니다.

4. 審査結果: 원안 채택

쌀輸入開放反對에 관한決議案 審査報告書

의안 번호	155
----------	-----

제안년월일: 1993년 3월 3일
제안자: 윤태봉의원외 6인

1. 주 문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차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영등포구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영등포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2. 제안이유

가. 우리 쌀의 생산자인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에서는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쌀수입 개방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

나. 정부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하루속히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사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국민의 主食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제16회 임시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발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폐쇄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영등포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영등포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 3.

영등포구의회의원일동